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은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

김 봉 덕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한결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없다.

누구나 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그에 의거하면 부닥치는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지만 과학기술을 홀시하고 경험에만 매여달리게 되면 침체와 담보를 면할수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이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그에 의거하여야 해당 부문, 해당 단위들에서 과학적인 발전전략, 경영전략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확신성있게 곧바로 전개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현시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에서 첫째가는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와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자기 부문, 자기 단위사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과학적인 발전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해나가는것이다.

혁명의 옳바른 전략전술이 없이는 혁명투쟁에서 우여곡절을 피할수 없는것처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적인 발전전략, 경영전략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당의 요구와 시대적추세에 맞게 자기 부문, 자기 단위사업을 개선해나갈수 없다.

세계적으로도 과학발전을 선행시키고 과학적예측에 의거한 전략에 기초하여 자기 부문의 발전을 이룩하여나가는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물론 종래에도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사회발전을 이룩해온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중시되는 오늘처럼 발전전략작성에서 과학적인 원리와 정보기술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혁신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과학화된 방법을 선택하고 모의과정을 거쳐 가능성을 확정하며 집행해나가지는 못하였다.

과학기술 특히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최근시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전략작성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우선 사회과학의 새로운 분야들이 개척되고 정보기술이 발전하는데 맞게 미래를 구상하고 부닥칠수 있는 도전을 예측하는데서 여러가지 과학적방법과 정보기술수단들을 많이 리용하고있다.

미래학, 사회통계학, 관리학을 비롯한 과학적인 리론들에 의거하여 미래를 구상하는

데서 새로운 과학적수법들을 적용하고있으며 결심채택리론과 컴퓨터결심채택지원체계에 의거하여 미래의 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설정해나가고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컴퓨터모의 과정을 통하여 이러저러하게 부닥칠수 있는 도전을 예상하면서 최량화리론을 적극 받아 들여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고있다.

지금은 과학을 중시하고 발전전략을 세우는데서 새로운 학문의 개척과 활용을 더욱 장려하고있으며 정보기술과 컴퓨터모의에 기초하여 최대로 많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또한 구체적인 전략실행계획의 작성과 집행에서도 과학기술에 의거하고 정보기술을 리용하는것이 추세로 되고있다.

정보기술수단들에 의거하여 가능한 최대로 많은 자료들을 통계분석한데 기초하여 전략집행의 중점과 내용, 당면한 도달목표와 필요되는 역량, 실현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있으며 그 집행형태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집계하고 수습대책들을 부단히 강구하면서 현실성있게 계획집행의 전과정을 조종해나가고있다. 여기에서는 조종론과 모의론, 통제학과 여러가지 실용프로그램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현실성있는 발전전략, 경영전략을 최상의 과학적수준에서 수립하고 자기 발전의 정확하고도 곧바른 길로 달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이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그에 의거하여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반적관리사업을 잘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주되는 요인은 관리문제이다. 아무리 유능한 인재들이 있고 대중의 정신력이 양양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로력관리, 설비관리, 자원관리, 과학기술관리, 정보관리를 비롯한 전반적관리사업을 과학적으로 잘하지 못한다면 소기의 성과도 이룩할수 없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경영활동, 기업활동에서 첨단과학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중시하는것과 함께 관리사업을 과학화, 정보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것은 전반적경영관리사업을 과학화, 정보화하여야 로력과 설비, 자원과 기술, 정보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경영활동, 기업활동을 실리에 맞게 해나갈수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실 관리사업을 과학화, 정보화하는 문제는 현시기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빨리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제기된다.

지금 어떤 나라들에서는 행정관리사업에 정보기술수단들과 인터넷을 적극 리용하여 종이문서를 완전히 없애고 주민등록, 기업허가신청, 행정수속, 세금 및 수수료의 지불, 신고등을 전자화하여 사회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있다. 그리고 전자회의체제와 망을 통한 정보제공, 자료종합, 로력관리, 자금관리 등을 진행함으로써 사업효률을 높여나가고있다.

기업관리에서도 최신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관리체제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다. 기계체산업시대에는 대규모생산의 효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관리기구를 피라미드식으로 만들고 정보는 아래로부터 위로, 지령은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하는 관리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망을 통하여 각 부서들에서 정보를 다같이 얻을수 있으므로 관리기구의 등급을 하나 줄이면 정보류통이 20%씩 증가되기때문에 관리기구를 피라미드식으로부터 병렬식구조로 변화시키고있다.

교육관리에서도 정보기술수단들과 망을 리용하여 교수관리, 학술관리, 학생관리사업을 진행하며 교무행정사업을 고도로 과학화, 정보화해나가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관리사업을 고도로 과학화, 정보화해나가는것이 기관, 기업소의 전반사업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는것이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그에 의거하여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체로 풀어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경제적제재책동이 보다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우리의 진군길앞에는 아직도 헤쳐나가야 할 난관과 애로가 적지 않게 제기되고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헤치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과 관리를 정상화하고 모자라는것은 자체로 찾아내면서 자체의 힘으로 만난을 극복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자면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자력갱생은 혁명가들의 고유한 투쟁방식이다.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외세의존은 예측의 길, 망국의 길이며 자력갱생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룡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길이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자력갱생의 근본담보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다. 발전된 과학기술만 있으면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되는것은 대신 리용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제기되는 난국을 돌파해나갈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봉쇄책동에 파렬구를 내며 자체의 힘으로 최첨단설비를 마련하자고 하여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자재와 원료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자고 하여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동력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자연부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자고 하여도 과학기술을 틀어쥐어야 한다. 특히 현대화, 정보화된 국방공업을 건설하여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과 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고 하여도 최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한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결린 문제를 푸는 방법, 창조와 변혁의 근본열쇠는 우리 식의 최첨단과학기술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기관, 기업소적인 범위에서나 전사회적인 범위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생산과 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적극 내밀고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킬수 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무기는 사상과 총대와 함께 과학기술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겠다는 자신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최첨단과학기술의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